



INDEX

1면 인사말-이명선 간호과학연구소장

2면 간호대학 소식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가정방문간호센터

공로상 수여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교수동정

박현애 학장-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

제 29대 회장 선출

이명선 교수-아시아 종양간호학회 초대

회장 선출

윤순영, 이인숙 교수-국제학술대회

(ICCHNR) 조직위원장 및 재정위원장

하양숙 교수-정년퇴임

▷연구실 탐방

한국인 뇌파데이터센터

▷자체직원 임용

박은미 시물레이션 조교

▷나이팅게일 선서식

▷국제교류

에텐버러대학 본교 방문

일리노이 주립대 본교 방문

오이타 간호과학대학 방문

군마 대학 본교 방문

▷간호대학-서울대학교 간호본부 교류

▷간호대학 홈페이지 개편/홍보 동영상 제작

▷간호대학 로고 제작

▷간호사 국가고시

▷종합실기시험

▷간호대학 환경개선

▷2013학년도 동계 간호대 교수 workshop

▷제68회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15면 학부 소식

▷2014년 간호대 학생회 발족

▷2013년도 간호대 학생회 활동

▷2014년도 전기 졸업생 포상

▷2014년 신입생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및 새터

▷동아리 탐방-카사

▷권현수(10) NGO 인턴십

20면 대학원 소식

▷2013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현황

▷연구지원금, 학술상 수여

▷교수 임용

21면 동창회 소식

▷동문 동정

▷신년하례회

▷모교방문행사

▷간호대학 LA 지부 동문 신년 하례회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장학금 지급

▷박정윤(80) 버스모금 기탁

23면 버스모금 안내

24면 간호대학 발전기금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장 이명선입니다.

새 학기 들어 간호대학에서는 69명의 3학년 학생들이 위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많은 학교 관계자 분과 학부모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간호전문직으로 입문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 간호계의 리더가 되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에서는 학부생들의 지역 사회 실습을 위한 전용 버스를 새로이 구입하기 위해 작년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여러 교수,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문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학교에서는 이번 1학기에 받게 될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박현애 학장과 부학장 및 학과장을 비롯한 모든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각종 보고서 작성을 비롯하여 학부생들의 현장실습 강화를 위한 시물레이션 실습 적용 및 프리셉터 활용 등 새로운 교육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4학년 종합시험에 시물레이션 실기시험을 도입하여 졸업할 학생들의 간호수기 역량 강화도 도모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최대한 높여주기 위하여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교수님들과 연구소의 지원으로 실제로 학생들의 연구가 학술지에까지 발표되는 성과를 거두어, 앞으로도 연구소에서는 학부생들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연구소에서는 또한 대학원생들의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학술세미나를 월 2회 개최하여

대학원생들의 관심 영역 확장에 힘쓰고 있으며, 국제적인 연구와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학술대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이라는 학술지를 매년 2회 발간하면서 간호대 교수와 대학원생을 비롯한 동문 교수와 연구진들의 논문 보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 6월 중에는 간병인이 없는 병동을 만들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정부에서 제도화하는 중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학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는 “Wellness & Integrative Nursing Care”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교내 교수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훌륭한 연자를 초빙하였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인본주의적 가치를 실천하는 고귀한 간호를 빛내기 위한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 및 사회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2014년 한 해도 많은 결실을 담아내는 풍요로운 나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장 이명선

간호대학 소식 0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가정방문간호센터 공로상 수여

3월 28일 금요일 10시,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회장 송종례) 의료가 관 가정방문간호사업 20주년 기념 및 출판기념식이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념식에서 본 대학의 가정간호센터가 1996년부터 지역사회 중심 가정간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가정간호 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가정간호 연구를 수행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간호대학 소식 02

간호과학 연구소 소식

1. 2013년 하반기 수요학술세미나 개최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7회의 수요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수요세미나는 EndNote 활용, 한국 자살, 간호조직의 성과평가 지표관리, Mixed methodology를 활용한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개와 활용, 질적 자료의 메타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간호대학 대학원생과 학부생,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교수, 기타 외부인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넓히고,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 겨울방학 특강 개최

1) 질적연구논문 글쓰기 특강

2014년 1월 10일 간호대학 105호에서 이명선 교수의 질적연구논문 글쓰기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간호대학 대학원생 및 교수 30여명이 참석하여 질적연구 글쓰기 전략 및 분석내용의 문장전환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게 배우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 영어 프리젠테이션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4년 1월 16일 간호대학 신관 408호에서 Kyung Lee 강사(현재 M&M

English Academy)를 초청해 간호대학 학부생을 위한 영어토론 및 과제발표 역량강화, 대학원생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영어논문 발표 역량강화에 대한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간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약 60명이 참석하였으며, 영어 강의를 통해 실제적인 영어 프리젠테이션 방법을 직접 경험하고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연구윤리워크숍 개최

2014년 1월 10일 간호대학 신관 103호에서 간호대학 대학원생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워크숍이 김금순 교수, 김효현 강사(서울대학교 연구원) 강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연구의 기본이 되는 연구윤리와 IRB 심의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 2014년 수요학술세미나 안내

2014년 3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간호대학 신관 502호에서 점심시간(12시~1시)을 이용한 수요학술세미나가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날짜	주제	연자
3월 12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박현애(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3월 26일	연건의 역사를 찾아서	정준기(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관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교수)
4월 9일	환자안심병동 운영과 환자중심 간호 구현	이인덕(서울의료원 간호부장)
4월 23일	카지노 지역에서 살아가는 도박중독여성의 도박경험	김성재(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5월 7일	진경산수화와 풍속화	탁현규(간송미술관 연구원)
5월 21일	간호연구와 윤리	김혜원(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5. 2014년 국제학술대회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Wellness & Integrative Nursing Care”를 주제로 간호대학 제 2연구동(구관) 2층 강당에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Time	Topic	Speaker
9:00~9:30	Registration	
Moderator : Prof. Jeongeun Kim SNU, College of Nursing		
9:30~9:40	Opening Ceremony	Prof. Hyeoun-Ae Park (Dean, SNU, College of Nursing) Prof. Myungsun Yi (Director, SNU, The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9:40~11:00	Wellness & Integrative Nursing Care: Practice and Research	Prof. Miriam Cameron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Nursing)
11:00~12:00	Redefining wellness in nursing: Constructing phenomenological nursing pedagogy	Prof. Eunyoung Suh (SNU, College of Nursing)
12:00~14:00	Lunch & Poster Round	
Moderator : Prof. Heeseung Choi SNU, College of Nursing		
14:00~14:40	Preventive Medical Effects of Nature Therapy	Prof. Yoshifumi Miyazaki (Chiba University, Center for Environment, Health and Field Sciences)
14:40~15:20	Integrative Wellness Care by Convergence with Old Wisdom and New Technology	Prof. Seung-Wan Kang (SNU, College of Nursing)
15:20~15:40	Coffee Break	
15:40~16:20	Symptom Management and Integrative/Complementary Therapies in Cancer Patients	Prof. Alex Molasiotis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16:20~16:30	Closing Ceremony	

6. 학술지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구, 간호학의 지평) 소식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연2회(4월, 10월) 학술지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구, 간호학의 지평)" 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투고규정 및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rins.sn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대학 소식 03

교수동정

박현애 교수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 제29대 회장 선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학장이 2014년 2월 7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 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는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116개 4년제 간호대학장 및 간호학과장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학장의 회장 임기는 2014년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간호대학 소식 03

교수동정

이명선 교수 아시아종양간호학회 초대 회장 선출

이명선 교수가 2013년 11월 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종양간호학회(Asian Oncology Nursing Society, AONS)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명선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Oncology Nursing Society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종양간호학회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며 첫 걸음을 내딛게 된 아시아종양간호학회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갖고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명선 교수는 미국 버팔로 뉴욕주립대학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4년 모교에 부임한 이후 종양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으며, 2005년에는 종양전문간호사 과정을 대학원에 개설하여 역량있는 종양 전문간호사 양성에 힘써 왔다. 2007년에는 대한종양간호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유방암학회 및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원과 함께 2년마다 서울에서 열리는 다학제적 국제학술대회인 “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의 설립자로 활동하였다.

2001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인 비너스회를 창립하는데 공헌하였으며, 2005년에는 미국의 저명한 유방암 재단인 “Susan G.

Komen”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유방암사이버센터(www.kbccc.org)를 설립하여 유방암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방암 생존자들의 힘을 북돋우기 위하여 2004년 한국유방암 예방강사협회(www.huyk.co.kr)를 설립하여 매년 유방암 생존자들을 교육하고 이들에게 유방암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일반여성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을 주고 있다.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자문위원으로서 한국 유방암의 예방과 간호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아시아종양간호학회의 설립 목표는 세계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간호학자와 간호사들이 종양에 관한 임상실무, 교육 및 연구 등을 협력적으로 교류하고, 최첨단 근거기반 간호를 적용하여 종양간호를 발전시키며, 아시아 종양간호사들의 간호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있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9개국의 대표와 학자들이 대표 이사 및 실행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란 등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에 으뜸가는 국제적 종양간호학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처음 출범하는 국제학회인 만큼 이명선 회장은 컨퍼런스 위원회를 비롯하여 연구위원회, 교육위원회, 학술지(Asia-Pacific Journal of Oncology Nursing) 출판위원회 및 홍보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학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제1회 AONS 국제 학술대회가 “New Era of Oncology Nurses in Asia”를 주제로 2013년 22-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제 2회 AONS 국제학술대회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약 1,000여명의 아시아 종양간호학자와 간호사들이 모여 학술과 실무 교류의 장을 펼치게 된다.



간호대학 소식 03

교수동정

윤순녕, 이인숙교수

국제학술대회 ICCHNR(International Conference of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조직위원장 및 재정위원장

interviewer : 위윤화(12), 이진아(13), 조은비(13)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선 교수님들께서 지역사회간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윤순녕교수님) 저는 대학졸업을 하고 일 년을 서울대학교 병원 신규간호사를 하면서 무조건 놀았어요. 그런데 1년을 놓고 보니깐 잘한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때 충족되지 못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해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전공분야로 지역사회간호학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간호학 담당 교수님이 세 분 계셨고, 간호학을 전공한 대학원생을 뽑았지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간호학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간호하는 것일까라는 호기심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인숙교수님) 대학을 다닐 때 송촌이라는 동아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과 상담을 하는 예방보건활동을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해 왔어요. 그때는 일차보건의료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시점이어서 일차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하여 일주일에 2,3일을 모여서 선배들에게 배웠고,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보건대학원을 갔고, 그리고 역할을 전공했어요. 4학년 때 처음으로 쓴 논문의 주제는 지역사회 결핵 환자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환자가 어떤 계기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어떻게 하면 치료완료율을 높일 것인가 등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지역사회간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국제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일까요?

A. 국제학술대회는 전 세계의 지역사회간호학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 학술회의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간호를 향상시키고 효과성을 입증시킬 것인지에 대해 여러 나라의 지역사회간호학 교수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 방향에 대해 구두 또는 포스터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토론을 해요. 또 이러한 연구결과를 실무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간호실무에 있는 간호사와 실무자, 간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와 교수가 지역사회간호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학의 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Q. 2015년에 한국에서 주최하는 지역사회국제학술대회의 주제가 "Health Promotion through Lifespan" 인데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 건강증진을 선정한 이유는 탐구 영역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1980년대부터 유럽을 비롯해서 Health Promotion이라는 용어를 쓰고, 정부 대표들이 모여 회의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의 기능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무를 본 30년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탐구해야하는 새로운 영역이죠. 또한 건강증진은 특정계층의 관심사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생애기간의 관심사입니다. 즉 생애주기를 따라 건강증진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년기와 성인기, 노년기에 있는 대상자를 간호하는 영역은 다르게 나누어져 있지만, 시간을 따라 계속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건강 증진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차예방부터 삼차예방까지 다양합니다. 학회에서 이러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연구주제를 다룸으로서 그 다양한 주제 속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가,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연구로 나타난 결과들을 지역사회간호실무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주제를 "Health Promotion through lifespan"으로 선정하였습니다.

Q. ICCHNR(International Conference of Community Health Nursing Research)홈페이지 갤러리게시판에서 작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찍힌 교수님들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차기 개최국의 준비위원장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셨을 때에는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점을 느끼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작년에는 에든버러 대학의 정말 고색창연한 학교에서 했어요. 17개국에서 온 300명의 참석자들이 모여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하고, 구두 발표와 포스터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잠은 호텔에서 자지만 모든 학술행사는 조용히 대학교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학술대회를 대부분 대학캠퍼스 밖에서 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와 이인숙 교수는 한국에서 16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학기 초에 16명의 교수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간호학회가 발족되어진 이후에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치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61명이 참석하였고, 그중에 대학원생들도 있어서 국제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실감했지요.

또 거기서 300명이라는 소수인원으로 2박3일 동안 작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들어오긴 소단위의 주제로 지역사회간호학에서 다뤄야 할 주제를 개인단위에서 시스템단위까지 조목조목 다루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소그룹단위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인상적이었지요. 또 영국인이 자신들이 나이팅게일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국의 피카달리 광장 근처에 나이팅게일 동상이 제일 앞에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전통이 오래된 나라의 기품이 있는 학회였습니다.

Q. 지금까지 국제 학술대회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걱정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고, 또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많은 국내의 회원을 참여토록 하는 일이지요. 특히 가까운 나라 일본을 위해서는 일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일정 이상 등록할 경우 통역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치전략을 잘 짜야지요.

Q. 그럼 마지막으로 ICCHNR 조직위원장, 재정위원장으로서는 2015년 8월 국제학술대회를 이끄시는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성공적 개최와 동시에 30개국의 나라에서 800여명의 참석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획이며, 각오입니다. ICCHNR이 축제같이 재미있고, 또 같은 지역사회간호학을 탐구하는 간호학자, 실무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학술 교류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게 하기 위해 여러 국제간호학술대회에 참가하여 2015년에 열리는 국제지역사회간호학술대회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국제지역사회간호학술대회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서도 지역사회간호학의 세 부전공인 학교간호, 산업간호, 다문화가족간호 및 보건간호, 일차보건의료인 보건진료원 분야등과 협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힘을 결집하는 전략으로 내년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대학 소식 03

교수동정

하양숙 교수 정년퇴임

interviewer : 박나연(10), 장소현(12), 김선애(12)



Q. 지난 30년 동안 계속 정신간호를 연구하셨고, 또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정신간호를 가르치시고, 이제 정년퇴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남기신 저서나 연구들을 보면 정신간호 중에서도 노인 정신에 더욱 더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A. 노인정신간호에 특히 더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우리 간호대학이 박사 과정을 개설한 1984년에 과정에 입문한 이후, 정신간호 중 세부전공 연구분야를 노인정신간호로 정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시대적 요구도 있었어요. 즉,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의 급증이 전망되기 시작하였지요. 동시에 간호학 교과과정에도 생애주기 별 간호라고 하여,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간호학문이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인간호 및 노인 정신간호의 중요성을 예견하면서 관심을 가졌고, 더 나아가 박사학위 논문도 노인정신간호 중재의 한 기법인 회상요법을 활용한 중재 연구를 하였어요. 이러한 시작이 그 후 다학제 팀(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을 이루어 한국치매협회 설립에 동참하고 치매예방과 관리 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저술활동과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봐요.

Q. 지금까지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회장, 정신간호 전문직 단체인 한국정신보건간호사회 회장 역임 등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수님의 어떤 능력이 이러한 업적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대학교수의 본래의 임무는 상아탑 속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만큼 사회봉사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사회봉사는 학회나 전문직 단체 활동에서의 임원 활동,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사업관련 자문위원 등의 소임을 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투입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저는 우선 여러 구성원들의 소리를 충분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리더라고 해서 일반 임원, 회원들의 소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내 의중대로 끌고 가기 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타협하는 것이 리더십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했을 때 구성원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학회활동, 협회활동을 잘 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교수님께서 경찰청에서 상담위원으로도 활동하셨는데, 그 분야가 정신간호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A. 정신간호 대상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난히 심약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일시적으로 또는 오랫동안 정신간호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요즘 처럼 자고 깨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빈발하고,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문적 스트레스 관리를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진 하지만, 어떤 전문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모를 경우도 많지요. 또한 정신간호는 신체간호 위주의 다른 간호영역보다도 그 사회의 변화에 민감해야 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빨리 찾아서 동참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관들이지만 그 분들도 업무관련이나 개인생활 등에서 많은 스트레스 및 심리적 갈등 속에서 생활하지요. 그래서 상담 관련 전문인이 여러 분야에서 배출되고 활동하지만 우리 정신간호학 교수 또는 정신간호사 역시 이러한 상담활동을 통해 위기에 처한 경찰분들을 돕고, 더 나아가 정신간호 현장의 영역 확장 등을 생각해서였지요. 즉, 경찰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게 하기보다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은 고위험대상자들의 병을 낮게 하고 재활을 하는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위기 중재와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정신간호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Q. 교수님께서 정신보건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 제정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위 선진국들 보다 50년 정도 늦게 되었지요. 물론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긴 했지만 여러 해 동안 그 때마다 다양한 이유로 다루어

지지 못하다가 1995년 12월 30일에 전격적으로 통과되었어요. 특히 통과되기 직전 해인 1994년과 1995년에는 내가 정신간호학회장 역임 중인 시기라 국회에서 정신보건법 관련 공청회 개최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국회로 달려가기를 여러 차례 하였어요. 법안 내용 중 정신간호사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법안이 준비 되고 있었거든요. 즉, 법안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직종에 정신보건간호사가 누락된 채 진행되고 있던 터라 '精神保健看護師' 일곱 글자를 삽입하기 위해 당시 국회의원 개인컴퓨터 화면 앞에 서서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가 전국 각 시,도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예방, 그리고 재활사업 등의 지역정신보건간호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지요.

Q. 오랜 시간 머물렀던 교단에서 얼마 전에 물러나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A. 최근 5년 전부터 새벽에 운동을 시작한 게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너무 강하지 않고 본인 능력껏 도전해 볼 수 있는 '국선도'가 저에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있어요. 스트레칭, 이완, 명상들로 조합된 70분 동안의 전신운동인데, 스트레칭-명상과 동작-이완 등의 순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전보다 여유시간이 생긴 지금은 더욱 더 열심히 운동에 시간을 투자해서 건강관리에 힘쓰려고 해요.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간 경험하고 싶었던 취미(예:악기 다루기, 외국어 학습 등..)도 학습하고 익힐 계획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간호학 전공자, 교수로서의 경력을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려고 해요. 어느 철학자에 의하면 '세계는 한편의 책과 같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곳을 돌아보려고요.

Q. 마지막으로 간호의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써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갈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A. 그간 학생들에게 꼭 당부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임상이 힘들지만, 졸업 후 적어도 2,3년은 꼭 경험을 해 볼 것. 그리고 나서 자신이 무엇을 할 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조언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후학들에게도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졸업 후 간호사가 된 후 임상 실무경험을 시작하게 되면 학부 때 배운 4년만 가지고는 간호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임상 경험은 간호사라는 직업에서 뿐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신과 가족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기본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 항상 향후 10년 뒤를 미리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배나 졸업 후 행사에 찾아오는 동문 선배님들, 또는 교수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에 대한 장·단기계획도 설정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간호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잘 생각해서 전진했으면 해요. 다시 말하면, 간호를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의 비전을 달성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학창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간호대학 소식 04

연구실 탐방: 한국인뇌파데이터센터

서울대학교 한국인뇌파데이터센터(센터장, 간호대 강승완 교수)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 서울대학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운영요령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참조표준 한국인뇌파데이터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저희 센터는 개인주의와 경쟁사회의 스트레스, 환경오염의 만연, 자극적인 먹거리와 무분별한 디지털 콘텐츠, 고령화사회에서의 치매인구 등 뇌건강 관리에 위해요소들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국가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뇌파를 전 연령대에 걸쳐 수집하여 발달장애, 우울증, 치매, 중독 등 주요 뇌관련 질환들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재 국가사업으로 전 연령대에 걸친 건강인의 뇌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말입니다. 2010년도 유럽전체에서 추산한 연간 뇌 관련장애로 인한 비용은 7980억 유로로 연간 전체 암 비용 1500~2000억 유로, 심장질환 비용 1920억 유로보다 무려 다섯 배가 높습니다. 뇌파는 각종 정신적 질환의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도구로서 매우 가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질환을 조기 예방하거나 질환으로 이환 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뇌파는 다른 뇌 관련 진단 방법에 비해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측정될 수 있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뇌파를 기반으로 한 정신적 질환의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별 건강인의 뇌파DB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뇌의 불건강정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측정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한국인뇌파데이터

센터는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최초의 뇌파DB를 개발하고자 하며, 현대사회의 각종 정신적 질환을 조기 예방하거나 질환으로 이환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뇌파DB는 혁신적인 휴대용 뇌파장치와 결합되어 건강한 삶의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각 연령대별 뇌파와 동시에 행동평가, 정서평가, 신경인지검사, 기질검사, 식습관평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2012년 11월 측정을 개시하여 현재 소아청소년 연령을 중심으로 400여명의 데이터 Set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충원이 모자란 소아청소년 일부 연령대의 측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4년 3월부터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 참조표준 명	참조표준 개발 건수 (참조데이터)
[2012년도] 1. 10~12세 한국인 남녀 연령별 뇌파	9건(약 100건)
[2013년도] 2. 7~9세, 13~18세 한국인 남녀 연령별 뇌파	약 50건(약 250건)
[2014년도] 3. 50~80세 한국인 남녀 연령별 뇌파	약 50건(약 200건)
[2015년도] 4. 19~49세 한국인 남녀 연령별 뇌파	약 50건(약 200건)
[2016년도] 5. 0~6세 한국인 남녀 연령별 뇌파	약 50건(약 250건)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한국인 뇌파 참조 표준개발사업을 위시로 하여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파 신호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Table1. 주요연구 과제

번호	프로그램명(시행부처/기관)	과제명	개발기간(시작-종료일)
1	복지부	편타성 손상후의 만성통증 발생에 대한 뇌전기생리학적 메커니즘 규명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정량적 뇌전도(QEEG)연구	2011~2013
2	산업기술원천융합사업(산업부)	인체안전성을 위한 3D기기/장비중심의 휴먼팩터 연구	2011~2013
3	글로벌프론티어사업(교과부)	실감교류인체감응솔루션	2011~2013
4	표준기술력향상사업(산업부)	한국인뇌파참조표준개발	2012~2016
5	웰니스휴면케어플랫폼개발사업(산업부)	일반인의 정신적 웰니스 증진을 위한 생체신호 ICT 융합 응용기술 개발	2013~2016
6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스트레스 개선을 위한 천연물 추출 물질의 항스트레스효과평가를 위한 뇌신경생리학적 평가모델개발	2013~2015

한국인뇌파데이터센터의 주요연구과제들은 아래와 같은 세계적인 치유과학의 중심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Vision 2020 : 다제간-융복합 중개연구 바탕으로 치유과학의 중심점으로 도약

치유과학 미래수요	경제난으로 인한 고도 스트레스 사회		생명력중심 과학적 치유모델 개발
	고령화 사회 의료비용증가로 인한 저비용 의료 요구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의 저비용개선모델개발
	선진국에서 웰니스 서비스 이용의 급격한 증가		웰니스 지식 플랫폼 구축으로 의료소비자의 웰니스 지식 활용 극대화
	국내·외 기관에서 스스로 치유하는 의학 도입		임상기관의 치유과학 솔루션 활용 확산
	생활밀착형 건강중심 문화운동의 확산 전망		공동체중심 건강문화보급



연구설문



뇌파검사



신체검사



인지검사

간호대학 소식 05

자체직원 임용 박은미 시뮬레이션 조교

2014년 2월 10일 간호대학에서는 시뮬레이션 센터를 전담할 조교로 박은미 졸업생을 자체직원으로 임용하였다. 2012년 12월 4일 개소한 간호대학 시뮬레이션 센터(SHINE center)는 현실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 술기 및 태도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습실이 구현되어 있으며, 각 실습실에는 사람과 동일한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실제 환자와 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고재현성 시뮬레이터와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제 병원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전담 조교의 주 업무는 시뮬레이션 센터 관리, 간호대학 실습보조, 서울대병원 간호사 시뮬레이션 교육보조,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등이다.

아래는 박현애 간호대학장과 간호대학 자체직원 임용식에서 찍은 사진이다.



간호대학 소식 06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4년 3월 4일 간호대학 12동 강당에서 제 54 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열렸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간호대학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교내의 인사 및 선후배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숭고의식 행사이다. 이날 선서식에는 서울대학교 변창구 교육부 총장, 서울대학교병원 오병희 원장, 간호대학 양광희 동창회장이 학생들을 위한 축사를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강대희 의과대학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학사부학장, 서울대학교치과대학 류인철 원장,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재일 원장, 서울대학교병원 송경자 간호본부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본교 교수, 많은 학부모와 동문선후배들이 함께하여 학생들을 축하해 주었다.



간호대학 소식 07

국제교류

에든버러대학 학장 Dr. Charlotte Clark 본교 방문

2013년 9월 30일 에든버러대학(University of Edinburgh) Charlotte Clark교수가 본교 간호대학을 방문하여 3학년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간호학 수업시간에 Dementia Care-policy and practice란 주제로 특강을 시행하였다. 특강을 수강한 박소연(11학번)은 “치매환자에 대한 간호, 정책 등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후, 본교의 박현애 학장, 방경숙 부학장, 박연환 학과장, 최희승 국제교류위원장과 함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에든버러대학의 MOU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교류를 통해 학술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군마대학 본교 방문

지난 3월 22일 토요일 일본 군마대학원 간호학과의 학과장 간다 교수와 시노자키 교수, 후지모토 교수, 보건학연구과의 이범식 교수가 본교 간호대학을 방문하였다.

추후 학부와 대학원생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교수 방문의 경우,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연구 교수로서 방문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이타 간호과학대학 방문

박현애 학장과 이명선 간호과학연구소장이 3월 17일~18일 일정으로 오이타 대학을 방문하여 16회 Research Exchange Seminar와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17일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두 대학 교수들의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날 박현애 학장과 이명선 교수는 각각 Use of Health Avatar for Health Promotion과 Effects of Breast Health Education Program for Breast Cancer Survivors에 대해 발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냈다. 18일에는 졸업식에 참석하여 오이타 간호과학대학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해주었다.



일리노이 주립대 간호대 학장 Terri E. Weaver 본교 방문

2013년 11월 12일 일리노이 주립대 Terri E. Weaver 학장이 본교 간호대학, 시뮬레이션 센터, 간호학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하계 연수로 UIC를 방문한 최희승 국제교류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교수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두 대학 간의 교류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8

간호대학-서울대학교 간호본부 교류

2014년 2월 25일 가든뷰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의 협의회가 있었다. 송경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하여 간호본부와 간호대학에서 지난학기 활동을 차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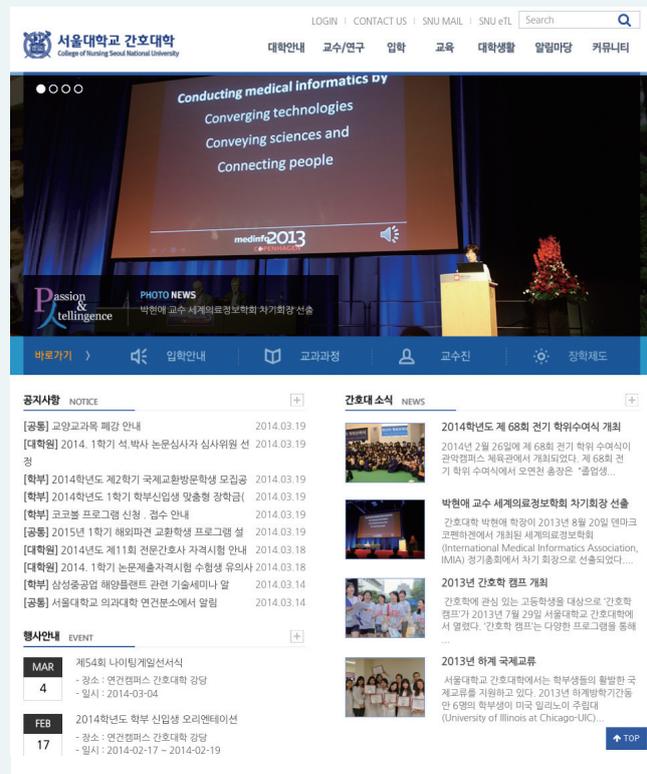
보고하였고, 2학기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9

간호대학 홈페이지 개편/홍보 동영상 제작

2014년 2월 17일, 간호대학은 학부 신입생 OT에서 전면 개편된 간호대학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게시판 시스템을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로 전면교체하고, 로그인/회원 관리 시스템은 snu portal과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snu mail로도 바로 연동 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일반인, 학생, 교직원으로 회원을 구분하여 권한에 따라 게시판 접근이 다르게 할 수 있어 회원구분에 따라 불필요한 페이지 접근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유출도 최소화하였다. 또한, 메인페이지에서는 최근 간호대학소식을 사진과 함께 접할 수 있어 최근 간호대학 소식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른쪽 사진은 홈페이지를 모바일에서 구현된 페이지 화면이다.

또한 본 대학은 2월에 간호학에 관심있는 청소년에게 전공 및 진로 탐색의 길잡이로 활용하고자 'SNU Pathfinder'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대학과 간호학을 14분 내외의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이 직접 출연해 간호대학의 역사와 전공을 소개하고, 비전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각자의 적성과 흥미에 따른 꿈과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보 동영상 또한 새로 개편한 간호대학 홈페이지 (<http://nursing.snu.ac.kr/about/vide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호대학 소식 10

간호대학 로고 제작

간호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디자인을 의뢰하여 로고를 제작하였다. 로고는 “인간을 돌보는 학문으로서의 nursing”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간호대학 소식 11

간호사 국가고시

지난 1월 24일, 광장중학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있었다. 서울대학교 4학년 85명을 비롯해 10개 대학에서 함께 응시를 했다. 여러 대학의 열띤 응원전들 속에서 서울대학교도 함께하였다. 든든한 아침식사로 김밥, 굴 등을 제공하고, 학교버스로 이동한 4학년들은 미리 도착해있던 학생회 응원단 15명의 응원 속에 고사장에 들어섰다. 박현에 학장님, 방경숙 부학장님, 정재원 학과장님 등 많은 교수님들이 광장중학교에서 응원을 하였으며, 4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보는 동안 학생회 응원단은 점심으로 죽과 따뜻한 음료를 준비하였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응원한 결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98.8%의 합격률을 보였다. 졸업 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선전하는 4학년 학생들의 모습이 기대된다.



간호대학 소식 12

종합실기시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성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종합실기 시험을 시행하였다. 본교 간호대학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흉통환자모듈, 아동학대환자모듈, 제왕절개수술환자모듈의 총 3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013년 10월 처음으로 평가에 적용하였다.

종합실기수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개의 항목은 대상자 간호와 관련된 간호실무 표준을 이해하고 간호상황에 적절한 핵심간호술을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종합실기시험은 단순한 핵심간호술의 성취수준을 넘어서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수집하여 건강문제를 찾아내고 비판적 사고에 근거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환자의 문제를 추론하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간호과정 적용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를 사정하는데 있어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와 협력관계를 수행하는지, 관련 법적, 윤리적, 실무 전 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수행한 간호과정을 적절하게 기록하는지도 평가하고 있다.

간호대학은 2013년 2학기 졸업사정 대상자부터 졸업요건으로 '졸업수기시험에 필수적으로 응시하여 통과한 자를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학생들이 시험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Skills' Lab을 개발하고 있으며, 1차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는 시험결과의 피드백을 준 후 일주일정도 연습할 시간을 주고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같은 교수평가자에게 재시험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종합실기 시험 시 학생별 수행시간은 30분이며,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시험에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아래는 종합실기시험당시 현장사진이다.



간호대학 소식 13

간호대학 환경개선 OSCE center 개선공사

OSCE란 실제 다양한 임상상황을 가정하여 학생들이 일정한 수기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교수 또는 모의환자가 미리 정해진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는 교수학습방법이다. 이러한 형태의 학습 운영에 필요한 OSCE 실습실 4개실과 통제실 1개실에 대해 벽체 및 바닥 미관을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OSCE room 통제실에 8 Core, 32GB RAM, Streaming Video Server, Gigabit Ethernet 사양의 Debriefing Server와 음향기기 일체

를 설치하여 debriefing system을 도입하였다. 또한 OSCE 실습실과 지역사회간호학 실습실, 간호관리학 실습실에 Full HD Dome Camera 2 set, 지향성 마이크 2set, Active Speaker를 설치하여, 병실과 지역사회 간호환경과 간호처치실 환경에서 OSCE 통제실로 연결되어 debriefing 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간호대학 제 2연구동 창틀 개선 공사

2014년 2월부터 한 달 여 동안, 간호대학 제 2연구동의 창틀을 전면 교체하였다. 단열기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냉난방 에너지 절감과 건물의 외관이 개선되는 효과로 연구동에서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에게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4

2013학년도 동계 간호대 교수 Workshop

2014년 1월 21일부터 22일 까지 양 일간 2013학년도 간호대학 교수 동계 워크숍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및 조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교육 인증평가준비 및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박현애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서윤경 교수의 “교수설계 및 수업 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오후에는 대학 인증 평가 준비위원회의 각 교수들이 간호교육 인증 평가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준비과정 및 내용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러 교수님들이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인증평가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22일에는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전일제 운영과 전문간호사과정 운영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오후

에는 헤이리마을에서 간호대학 교수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으며, 간호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끊임없는 토론을 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5

제 68회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4년 2월 26일에 제 68회 전기 학위 수여식이 관악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제 68회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오연천 총장은 “졸업생 여러분이 시야를 세계로 넓히고, 습득한 학문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며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시대정신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며 “공동선에 기여하는 국가관과 인간정신을 두루 갖추고, 다양성과 유연함을 중시하면서 창조적 사고를 통한 근원적 가치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며, 세계 교양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위수여자를 비롯해 간호대학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 학위 수여자의 지도교수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제 68회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80명, 석사 20명, 박사 9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08학번 권보람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여하였다.



학부 소식 01

2014년 간호대 학생회 발족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는 학생들의 학업과 다양한 자기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로 "학생회"가 있다. 학생회는 매년마다 신입생 새내기배움터, 간호사 국가고시 응원, 연건캠퍼스 축제 운영, 교수 학생간담회,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간호대학 학생들의 지지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014년 현재 제23대 학생회는 학생회장 12학번 장영희, 부학생회장 12학번 김찬미를 필두로 새로 구성된 약 40명의 집행위원회가 이끌어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복지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새로 선출된 학년대표 박다민, 김혜림, 이민지, 정희주와 4개 반의 대표인 강전승, 강다운, 조현재, 조은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비의 사용을 감독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2014년부터 간호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5개의 국(정책기획국, 문화자치국, 학습지원국, 학생복지국, 사무국)으로 개편하였으며,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다. 먼저 정책기획국에서는 뉴스레터 제작, 홍보동아리 육성, 진로캠프 등 대외협력 업무나 학생회 사업 피드백 및 의견 수렴 등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화자치국은 총MT, 개강파티, 연건대동계, 운동회, 관악 홈커밍데이 등 모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간호대 동

아리의 자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습지원국은 간호대 학생들의 학업과 학과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스터디그룹 지원, 전공과목 오리엔테이션, NMP(Nursing Mentoring Program), 생활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복지국은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과방 관리, 바자회, 책나눔장터, 시험기간 간식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은 학생회비 관리, 학생회실 관리, 페이스북 및 커뮤니티 관리 등을 진행하는 학생회의 핵심적인 부서이다.

제23대 학생회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일해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3가지(Communication, Passion, Renovation)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학부 소식 02

2013년도 간호대 학생회 활동

스터디 그룹

간호대학 학생회 학술부에서는 2012년부터 진행되어 온 스터디 그룹 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열심히 공부한 자, 떠나라!”라는 테마로 진행하였다. 색다른 테마 덕인지 학업에 열의를 보이는 20여 그룹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학술부는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중간고사 전후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여 도넛 한 박스씩 간식을 지원해 주었다. 학기말에는 매 스터디 시간마다 참여하는 인원 및 스터디 시간을 고려하여 여러 그룹들의 순위를 매겼다. 간호대 스터디 그룹의 특성상 그룹원간의 친밀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최종 점검 때 상위 3팀에게는 10만원 가량의 여행비를 지원해주며 시험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었다.

가을 대동제

11월 20일~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가을 대동제는 체육대회로 이루어졌다. 첫 날에는 예선 경기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팀들의 배드민턴, 왕별 피구, 3각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족구, 팔씨름 경기가 있었다. 각 경기마다 순위권에 들면 상금을 주었고 많은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둘째 날에는 5.35km에 달하는 거리를 학교 근처 한 바퀴를 돌며 연건 마라톤이 진행되었다. 스태프들의 통제 하에 참가 선수들은 단체티를 입고 안전하게 무사히 경기를 마쳤다. 다양한 경기들을 통하여 학우들의 협동심을 기르고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집행부 홈커밍데이

2013년 2학기의 종강을 맞이하여 지난 12월 14일 집행부 홈커밍데이 행사가 있었다. 간호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를 했던 선배들을 초대하여 현 집행부원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다양한 조언들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2대 학생회 사업들 사진이 담긴 달력도 제작하여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우수 NMP 조 표창

2013년 1학기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 NMP(Nursing Mentoring Program)가 1년 동안 잘 마무리 되면서 우수 조 표창을 하였다. 멘토와 멘티들의 만남이 갖고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낸 조와 팀을 각각 선정해 다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외식 상품권을 증정하였다. 첫 사업이었던 만큼 지원이 부족했다거나 프로그램이 부실하였다는 지적이 많아 다음 학생회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를 느꼈다.



학부 소식 03

2014년도 전기 졸업생 포상

지난 3월, 2014년도 전기 졸업생 40명이 서울대총장상 등 총 14개의 상을 수여받았다.

포상명	성명
최우수상 (서울대총장상)	류수미
최우등상	류수미, 이지연, 박세영, 유하영, 김민정, 최지선, 김정은
우등상	김도연, 김유진, 박수경, 이효원, 안주희, 황신영, 김유리(10-11194), 이하늘, 유연실, 이해원, 조윤정, 김희라, 이수진, 김진, 장예람, 이지수, 노아영, 김호영, 남선화, 김유리(08-11055), 강한솔, 이주연
간호대학장상	이지연
대한간호협회장상	박세영
간호대동창회장상	유하영
서울대병원장상	김민정
한국간호과학회장상	최지선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상	김정은
시그마국제학회장상	김도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상	장명석
공로상	유미옥
국제한인간호재단회장상	황신영
대한기독교간호사회회장상	김한나



학부 소식 04

2014년 신입생 입학 전 교육 프로그램 및 새터

14학번 새내기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새내기 배움터는 이천에 위치한 자연나라 수련원에서 진행되었다. 새내기 배움터 준비를 위해 꾸려진 새터준비위원회 구성원들 외에도 많은 선배들이 동참하여 선후배들 간의 우애가 끈끈하게 생겨난 행사였다.

첫째 날은 교수님 소개 및 인사와 송경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님의 진솔한 강연으로 새내기들이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오후에는 재학생 선배들의 강의가 있어 아직 낯설지만 한 새내기들이 수강신청, 학점 관리, 교과 외 활동 등 대학 생활의 실질적인 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각 반별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에 참가하여 선배들과 후배들끼리 어색함을 깨고 친해질 수 있었으며 자유롭게 친목도 모를 하며 정보 교환과 상담을 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김성재 교수님의 강연과 피부 관리를 주제로 한 관심 강연이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반별로 운동회와 포스트 게임을 진행했는데, 동기들 간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새내기들이 입학 초에 대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저녁에는 새내기들의 장기자랑과 재학생 선배들의 공연이 이어졌는데, 다양한 끼를 지닌 간호대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동아리들의 춤, 밴드 공연, 합창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체적으로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선배들은 과도한 음주나 위험한 활동들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2박 3일 동안 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끝난 새내기 배움터가 되었다.



학부 소식 05

동아리 탐방: 카사(CASA)

카사(CASA)는 Seoul National University Catholic Student Association의 줄임말로 서울대학교 연건 캠퍼스 내에서 가톨릭 신앙의 의대, 간호대 학생들이 신앙공동체활동과 더불어 활발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개설된 지 올해로 58년째이며 서울대 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아리 중 하나입니다.

카사의 두가지 큰 활동인 가톨릭 신앙활동과 의료봉사활동에 대해 각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사는 대학생 사목부와 연계하여 학교 내에서 학기 중 두 번의 큰 미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달 2주마다 라파엘 클리닉 경당에서 봉사자들을 위해 행해지는 미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소규모로 모여 자신의 생활을 나누고 기도하는 기도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학기에는 “예비자 교리”를 주최하여 바쁜 와중에도 신앙을 가지고 싶은 연건 캠퍼스 학생들에게 캠퍼스 내에서 교리를 가르쳐 신자가 될 수 있게끔 합니다. 또한 서울대 내 의대, 간호대 가톨릭 학생회로 연합하여 미사, 피정, 그리고 가톨릭 성서 모임을 주최함으로써 다양한 학교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카사는 또한 가톨릭 의료 봉사단체인 라파엘 인터내셔널과 연계하여 혜화동 라파엘 클리닉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라파엘 클리닉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의료에 소외되어 있는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소이며 매주 일요일 진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진료소에서 직접 환자를 돕는 활동을 통해 그들과 대면하고 또한 어깨 너머로 선생님들의 진료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실제적으로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에는 일주일 간,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국내의 의료소외지역으로 여름진료를 갑니다. 여름진료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직접 밥을 지어보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며 직접 논과 밭에서 농활을 하기도 합니다. 낮 동안 땀 흘려 봉사를 하고 밤에는 맑은 공기에 별을 바라보면서 서울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겨울방학에는 필리핀의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 약 2000명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5박 6일간 필리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꿈을 키워 나가는 필리핀 학생들에게 진단과 함께 의료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사는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인 친구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카사는 책으로만 보았던 간호학적 지식을 임상에 가기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연건 캠퍼스 내에 가장 큰 연합동아리중 하나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공동체보다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학부 소식 06

국제개발 NGO 활동 후기 Project Malawi

신비로운 미지의 땅, 아프리카에 다녀온 지 꼭 1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국제개발 NGO인 Project Malawi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Project Malawi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하나인 Malawi의 수도 Lilongwe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HIV/AIDS 예방 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NGO입니다. 한국인 직원 5명과 현지인 직원 10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ject Malawi의 특징은 무작위 비교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s)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를 여러 군으로 나누고 HIV/AIDS 감염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3가지 요인(포경수술, 장학금, 성교육)을 경우의 수대로 조합하여 적용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한 집단에는 포경수술과 성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다른 집단에는 포경수술만을 제공, 또 다른 집단에는 장학금과 성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 어떤 요인이 HIV/AIDS 감염률 감소에 효과적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두 가지 요인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어떤 두 가지 요인을 섞어서 Intervention을 제공하면 오히려 효과가 상쇄되는지 등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그 특성상 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어떤 방식의 Intervention이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근거를 세움으로써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회적이고 시혜성이 큰 기존의 국제개발 활동에 의문을 품고 있던 때에 Project Malawi를 알게 된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HIV/AIDS 예방 사업팀에 소속되어 대상자를 찾아 Intervention을 주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 개발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도

착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한다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오히려 아주 작은 부분을 생각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주일의 Intervention 일정표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엔 사업에 쓰이는 차 3대가 모두 고장 났습니다. 갑자기 물가가 치솟아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한 날도 있었습니다. Intervention 제공을 위해 찾아 간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 모두가 옆 마을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어 하루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장 포경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Clinical Officer(준 의사)가 월급 인상을 요구하며 수술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생각지도 못 한 사소한 문제들이 사업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차 3대를 고치기 위해 카센터를 찾고, 마을 사람들을 모으려고 Village Headman(촌장)과 돌아다니며, Clinical Officer와 월급 문제로 실랑이 하는 것으로 시간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통해, 저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을 고려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그림은 어디에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구멍을 메워 나가는 것은 현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합니다. Project Malawi 인턴 활동을 통해 국제개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버리고 실현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직접 뛰어보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귀한 배움입니다. 더불어 캠퍼스 안에서, 혹은 병원 실습으로 느끼는 것 외에 또 다른 간호학의 매력을 느끼고 간호학을 배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권현수(10)



2013년 11월, 대상지역 교장단 회의를 진행하며



2014년 2월, 인턴 활동을 마치며

대학원 소식 01

2014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난 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간호대학 강당에서 2014학년도 간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석사, 석·박통합, 박사 신입생 약 60명이 함께 하였으며, 학생들은 이 후 전공 과목 교

수님들과 1시간 동안 대학원생으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연구방향, 진로에 대해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도 대학원 신입생현황은 다음과 같다.

과정	성인간호학	모아·정신 간호학	지역사회간호·간호시스템
석사 (22명)	노인전문간호사과정 3명 중양전문간호사과정 4명 중환자전문간호사과정 2명 일반 3명	모성간호학 3명 아동간호학 2명 정신간호학 4명	간호정보학 1명
석·박통합 (15명)	성인간호학 2명	모성간호학 1명 아동간호학 2명 정신간호학 2명	지역사회간호학 3명 간호관리학 3명 간호정보학 2명
박사 (21명)	성인간호학 7명	모성간호학 2명 아동간호학 2명 정신간호학 4명	지역사회간호학 3명 간호관리학 2명 간호정보학 1명

대학원 소식 02

연구지원금, 학술상 수여

본교 대학원생들이 연구결과 및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여 수혜 받은 지원금과 학술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학술상	수여자 이름	전공
시그마학회지원금	차지은	성인 박사과정
간호과학연구소 지원금	유영미	성인 박사과정
	이고운	지역 박사과정
	차지은	성인 박사과정
	Dovdon Baigalmaa	관리 박사과정
서울시 한마음 장학금	강현주	아동 박사과정
	유혜리	아동 석사과정
	이수진	아동 석사과정
	조은미	정보 석사과정
아동간호학회 우수논문상	박지선	아동 박사과정
동문학술상	강경화	정신 박사과정
	강현주	아동 박사과정

대학원 소식 03

교수 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14년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
대구보건대학교	이경아	간호관리학
	차지은	성인간호학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김묘경	성인간호학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장선주	정신간호학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김미영	성인간호학
청주대학교	한달룡	정신간호학
한양대학교	장혜영	성인간호학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에 있는 장선주 교수를 만나 임용소감에 대해 들어보았다.

학부 졸업 후 시작된 제 임상생활은 '급성기 대상자의 치료 및 회복과정' 과 너무나 닮았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통해(1998년-2000년)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2000년-2002년)으로 입원해 개방병동(2002년-2006년)으로 전동, 이후 낮병동(2006년 2013년)에서 정신사회적 재활을 충분히 한 뒤 임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참 재미있는 일이지요.. 중간 과정이 꼬이거나 했으면 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6년의 임상을 뒤로하고 2014년 신학기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교원으

로 임용된 학부 98졸, 석사 04졸, 박사 10졸 정신 전공 장선주입니다. 신학기라 정신없는 3월의 오늘, 글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분에 더 정신없었던 지난 1, 2월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선배님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사랑하는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double joy-pain dilemma에 놓였고, 그렇지만 마침내 신중하게 선택한 이 길에서 이제는 교수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거라고 스스로 기대해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조금이라도 닮아보고자 먼저 걸어가신 그 길에 이제 첫 발을 떼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제가 병원과 학교에서 받았던 큰 사랑들, 제대로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며 일신우일신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대전에서 장선주 올림



동창회 소식 01

동문 동정

곽월희 동문(78년 졸업)

- 병원간호사회 회장을 연임하였다.

윤혜상 동문(78년 졸업)

- 지난 1월에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조경숙 동문(79년 졸업)

-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어 취임하였다.

박인숙 동문(81년 졸업)

- 지난 1월 보라매병원 간호부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조문숙 동문(84년 졸업)

- 지난 1월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으로 승진 발령받았다.

김연희 동문(85년 졸업)

-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으로서 이사로 승진하였다.

박은옥 동문(91년 졸업)

- 지난 3월에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동창회 소식 02

신년하례회

2014년 1월 9일(목) 오후3시, 본관 강의실에서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양광희(72졸업)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박현애(80졸업) 학장, 역대 동창회장과 명예교수, 그리고 동창회 임원, 모교교수 등 선후배 동문 9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혜원 상임이사의 사회로 양광희 동창회장의 신년하례인사와 박현애 학장의 신년축사가 있었으며,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소개와 함께 신년덕담이 이어졌다. 임숙빈 한국간호과학회장이 찬조한 시루떡 커팅을 하며 신년 기원을 하였으며, 준비된 다과뷔페와 함께 선.후배 간 신년인사를 하였다.



동창회 소식 03

2013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30,40,5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

지난 2013년 10월 14일 관악 캠퍼스와 간호대학 강당에서 졸업 30, 40, 5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가 개최되었다. 동문 80여명은 캠퍼스 투어를 하며 서울대학교 미술관 및 규장각, 간호학 박물관을 관람하였고,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을 통해 30주년 동문들이 1,715만원, 40주년 동문들이 1,100만원, 50주년 동문들이 9,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하였다. 동문

들은 간호대학장, 동창회장 초청 환영 오찬 시간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스승, 동문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30주년 동문들이 “응답하라 1983”으로 사진영상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간호대학을 추억하게 하였으며, 바이올린 연주와 독창 공연으로 환영 행사를 이어갔다.



〈관악캠퍼스에서 간호대학 졸업 30,40,50주년 동문들〉

동창회 소식 04

간호대학 LA지부 동문 신년하례회

LA 동문들이 2014년 1월 11일(토) LA시내 JJ그랜드 호텔에서 신년 하례식을 하였다. LA인근에 거주하는 동문과 가족 80여명이 JJ그랜드 호텔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그간 연마한 장기자랑과 여흥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 소식 05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장학금 지급

2014년 2월에 전반기 동창회 장학금 1,070만원을 모교 재학생 9명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6명(총 15명)에게 지급하였다.

동창회 소식 06

박정윤(80졸)동문 버스모금 기탁

80졸 박정윤 동문이 간호대학 버스구입모금에 10,000불을 기탁하였다.



버스모금 안내

간호대학 버스 구입 기금은 간호대학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실습지를 이동하는 데 이용할 버스 구입에 사용됩니다.

버스 구입 소요 예산 : 1억원

- 모금 목표액 : 5천만원

- 모금 기간 : 2014년 6월 15일 까지

간호대학 버스 구입 기금 참여방법

- 홈페이지 참여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www.snu.or.kr에 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 농협 079-17-065324 신한 100-023-643537

- 전화참여 : 02-880-8004, 02-871-8146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간호대학문의 : 02-740-8801, khan@snu.ac.kr (담당자 : 한경희)

* 간호대학 버스 구입 기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용도를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기금명 : 간호대학 버스 구입 기금).

* 간호대학 버스 구입 기금에 참여해주신 개인 및 법인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병원으로 또 지역사회로, 입원 환자에서 소외계층 어르신까지, 저희는 장래에 더 멋지고 따뜻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오늘도 다양한 현장으로 실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곳곳의 실습현장을 오갈 때 이용하는 학교 버스는 헛수로 12년이 넘는 낡은 버스인데다 정원도 25인승이어서 한 실습조가 이동하기에도 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실습지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살려 ‘간호가 여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저희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2대 학생회장 박소미(11) 올림.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13년 9월 1일~2014년 2월 28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73년 졸업동기회(1973)	75년 졸업동기회(1975)	83년 졸업동기회(1983)	간호대학 교수협의회
간호대학 IRB	서울의대 간호대 합창단	보라매병원 간호대학 동문	서울아산병원 간호대학 동문
강신자(1963)	강영아(2001)	강태립(1996)	강현주(2002)
고삼숙(1984)	고진강(1998)	공은희(1995)	곽미경(1996)
김경숙(1991)	김금순(1972)	김명애(1975)	김미영(1987)
김성재(1981)	김애란(1998)	김연희(1985)	김영아(1988)
김정수(1988)	김정은(1977)	김지은(2008)	김해진(2006)
김향(1995)	김현희(1963)	김혜원(1985)	류재금(1996)
민열하(1997)	민자경(1996)	민희영(2008)	박연환(1991)
박정호(1963)	박지선(2006)	박현애(1980)	박혜영(2009)
방경숙(1985)	서은영(1994)	성일순(1980)	송미순(1974)
송민경(2007)	심유미(1995)	양광희(1972)	양영란(1995)
오상준(2012)	원상명(1980)	유숙자(1963)	윤효정(2008)
이남주	이명경(2012)	이명선(1975)	이선영(1999)
이소우(1964)	이수진(2006)	이연우(1999)	이영선(1980)
이유미(2001)	이은옥(1963)	이정림(1992)	이주연(2005)
임난영(1971)	임동식(1980)	전은주(2009)	정영선(1989)
정옥란(1991)	정재원	정정희(1981)	조동란(1970)
조성현(1993)	채선미	최영균(1974)	최한주(1986)
최희승	하양숙(1971)	함윤희(1992)	홍정희(1990)
황인주(2000)			

학부모		
허성환	이수연	고완선

교직원								
강성호	박태용	신승호	유동선	윤선화	이선애	임학빈	한경희	홍승복

기타
(주)아이메디션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부금 출연방법

방문납부,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방문납부

학교를 내방하여 기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 (간호대학)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 (간호대학)

기타

현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기부는 전화해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처 : 02-740-880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